

성서 히브리어 ‘아드’의 공간 개념 소고

이환진*

1.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성서에서 아드는 올람(עולם)과 같이 “영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BDB 723b). 곧 “아주 오랜, 옛날의”(합3:6, 욥20:4) 등과 같은 뜻으로 먼 과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전치사와 함께 쓰여 “영원히”(시 21:7, 잠 29:14) 등과 같이 먼 미래를 가리키기도 하며, “일생동안” 또는 “언제나”(암 1:11, 시 83:18) 등과 같이 계속되는 현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 그 의미가 발전하여 “...할 때까지”(시간), “...까지”(장소) 등의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문형 구조에서 아드가 다른 명사를 꾸밀 때 이 단어를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성서 속에서 아드가 이렇게 구문형 구조 속에서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이사야 9:5과 47:7과 57:15 그리고 하박국 3:6 등이다. 우선 하박국 3:6에 나오는 하르레이 아드(הררי עד)는 신명기 33:15의 하르레이 케덴(הררי קדם)이란 평행구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여 “태고적 산”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사야 57:15의 쇼켄 아드(שכן עד), 이사야 47:7의 그베렛 아드(גברת עד) 그리고 이사야 9:6의 아비 아드(אבי עד)에서 아드는 시간 개념으로 읽을 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선 이사야 57:15의 경우 상반절을 『개역한글판』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행갈이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 뉴욕대학교 히브리유다학과 박사과정.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서 “영원히 거하며”가 바로 쇼켄 아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히브리 성서에서 아드가 하느님의 영존성을 나타내는 곳이 없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구절이 이사야 47:7이다. 바벨론 심판 신탁에 나오는 구절이다. 마찬가지로 『개역한글판』으로 인용해 본다.

내가 영원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원히 주모가 되리라”는 부분이다. 『개역한글판』은 아드를 생략하고 읽지 않았다. 르올람 에흐예 그베렛 (רַבְרָה אֵיחָהּ אֵלֹהִים)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주모”란 번역어도 주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1998년에 나온 『개역개정판』은 “여주인”이라고 옮겼으나 마찬가지로 그 뜻을 잘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튼 이 구절이 문맥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온 점이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의 메시아 예언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다. 5절 전체를 역시 『개역한글판』으로 인용해 본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이다. 아비 아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읽는 본문이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앞서 밝힌 대로 모두 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시간 개념으로 읽을 때 문맥상 무척 어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태리의 가톨릭 성서 학자 미첼 다후드가 우가릿어 아드에 “의자”라는 뜻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위의 세 성서 구절에서 아드를 공간 개념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2. 우가릿어 문헌에 나오는 공간 개념 아드 (‘d)

미첼 다후드(Mitchel J. Dahood)는 1969년에 간행된 성서학 학술지 *Biblica* 50호에서 시편 60:11 등 몇 군데에서 성서 히브리어 아드가 “자리, 보좌”(seat, chair) 등의 뜻을 나타낸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¹⁾ 그러면 키르타 전설 가운데에 우가릿어 아드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인용해 본다 (KTU 1.16 vi 22-23).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키르타는 그의 의자 위에 앉았다 (y**t**b k**r**t l ‘d**h**).
 그가 왕국 보좌 위에 앉았다(y**t**b l k**s**i m**l**k).
 왕좌 위에, 통치 권좌 위에(l n**h**t l k**h**t d**r**kt).

위의 인용문 가운데 상황절인 첫째 행을 제외하고 나머진 세 행은 대구법으로 짜여 있다. 이 대구법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x)-(b)-(c1)
 (a)-(b)-(c2)-(d1)
 (b)-(c3)
 (b)-(c4)-(d2)

이렇게 이 세 행은 계단식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행과 둘째 행은 주어인 “케렛”(x)을 중심으로 “앉았다”(a)는 동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위에”(b)와 함께 두 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둘째 행과 셋째 행은 평행 요소인 “왕국”(d1)과 “통치권”(d2)이 강조되고 있다. 행위어가 목적어를 향해서

1) Mitchel J. Dahood, “Hebrew-Ugaritic Lexicography VII,” *Biblica* 50 (1969, 347; M. J. Dahhod and T. Penar, “Chapter II: Ugaritic-Hebrew Parallel Pairs,” in *Ras Shamra Parallels*. Vol. I. Ed. L. R. Fisher. *Analecta Orientalia* 49.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2, 289 (no. 409).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요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위에”(b) 그리고 “의자”(c1)와 관련된 용어들 - “보좌”(c2), “왕좌”(c3), “권좌”(c4) - 이다. 이 구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소는 바로 두 번째 공통 요소인 “의자”(d), “보좌”(ksi), “왕좌”(nht), “권좌”(kht)이다. 이 대구법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우가릿어 아드(d)에 공간 개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키르타가 자신의 왕국에서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보좌에 앉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왕권이나 통치권 언급이 그 문맥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성서 히브리어를 비롯하여 북서방 셈어에서 동사 야좌브(שב) 또는 יתב)가 “(왕으로서 권좌에) 앉다”는 뜻으로 쓰인 예가 많이 있듯이(시 2:4, 9:8 등과 Cowley 6:2,2) KAI 24:9, 26A i 11, 214 8 등3) 위의 우가릿어 본문 역시 전치사 레(l)가 동사 야티부(ytb)와 함께 같은 뜻을 나타낸다. 아래의 두 예도 바로 이 본문에서 쓰인 아드의 용법에서 유추해 낸 예이다.

두 번째로, “새벽과 해거름”(KTU 1.23)이라는 제의 신화에서도 아드가 공간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신화의 열두째 행에 아드가 전치사 알(또는 알루)와 함께 등장한다. 여덟째 행부터 읽어보기로 하자(8-13행).

무투-좌루가 자리에 앉았다.
 한 손에는 불임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과부 지팡이를 들고.
 포도넝쿨 막대기를 자르는 이가 포도넝쿨을 힘차게 잘랐다.
 포도넝쿨 막대기를 매는 이가 그 막대기를 뺐다.
 그들은 포도넝쿨처럼 무투 들판(또는 산)을 쓰러뜨렸다.
 일곱 번 신전(또는 왕궁)을 향하여 읊으면(yrgm 'l d)
 사제들은 큰 소리로 응답한다.
 “자, 들판이다, 신들의 들판이다.
 아티라투-락호마이의 들판이다.”

2) A. Cowley, Aramaic Papyri of the Fifth Century B.C. Oxford: Clarendon, 1923, 16. “아탁사스다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יתב בכרסאד) 통치를 시작할 때.”

3) 삼알어 진질리 새김글(KAI 24:9)과 페니키아어 카라테페 새김글(KAI 26A i 11)에 야좌브 동사가 전치사 알과 함께 쓰여 “왕좌에 앉다”는 뜻으로 쓰였다.

“나 하야의 아들 킬라무와가 왕좌에 앉았다(ישבת על כצא)” (KAI 24:9)

“나(아즈타와다)는 내 아버지의 왕좌에 앉았다(ישב אנך על כסא אבי)” (KAI 26A i 11)

위의 “일곱 번 신전을 향하여 읊으면”이라고 읊긴 열두 짝 행은 무엇을 암송하라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무투-좌루 신이 자리에 앉았다”로 시작하는 이 인용구의 앞부분이나 뒤따라 오는 “자, 들판이다”로 시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한 “사제들”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전치사 *알과* 함께 쓰인 *아드*는 여기서도 분명히 공간 개념으로서 “신전” 또는 “왕궁”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우가릿어 본문은 “일곱 번 신전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로 나뉘어 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제의 규정”(rubric)⁴⁾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드*는 “신전”이나 “왕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곧 신전이나 왕궁에서 이 신화를 낭송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각할 본문은 제의 문헌에 나오는 공간 개념 *아드*이다. 이 본문은 우가릿 신들이나 군주들에게 바칠 제물의 목록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기도문이 덧붙여 있는 매우 독특한 문헌이다(KTU 1.119). 5행에서 10행까지 읽어 보자.

이렛날, 왕은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일루 신전에는 암소 한 마리를

바알루에게는 암소 한 마리를

군주에게는 암소 한 마리를

군주비에게는 작은 암양 두 마리와 암소 한 마리를

공양하는 사람이 그의 집에서 제물로 잡아 드린다.

그리고 우가릿 바알루 신전 제단에서 살라 바친다 (wtmrr b'd bt b'1 ugrt).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친다.

전형적인 제물 목록 문헌인 위의 인용문에서 “신전 제단”은 니콜라스 위얏의 제안대로 “(제물을 바치는 제단의) 방”이라고도 옮길 수 있다.⁵⁾ 전치사 *비(b)*와 함께 쓰여 “*아드*”가 분명히 공간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4) Theodor H. Gaster, *Thespis: Ritual, Myth and Drama in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Henry Schuman, 1950, 242.

5) N. Wyatt, *Religious Texts from Ugarit: The Words of Ilmilku and his Colleagues*. The Biblical Seminar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418.

6) 텔 올모 레메, 앞의 책 342쪽 주 25와 Yitzhak Avishur, *Studies in Hebrew*

전치사 비와 함께 아드가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는 “송덕문”(頌德文, eulogy)으로 분류되는 KTU 1.6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학자들 간에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소개한다.

일루, 신들이시여,
 신들의 가족이시여,
 신들의 모임이시여,
 타카무나-슈나마여,
 일루-아티라투여,
 은총을 베푸소서, 일루여,
 힘을 더하소서, 일루여,
 평안하소서, 일루시여!
 신성한 하슈의 신이신 아다투여,
 짜파누 신전에서(b'd spn)!
 우가릿의 바알루여(b'l ugrt)!
 신성한 창(槍)으로,
 신성한 도끼로,
 신성한 갈고리 철퇴로,
 일루에게 드리는 기름 제물로,
 일루에게 드리는 번제물로
 일루에게 드리는 봉헌제물로
 일루에게 드리는 속죄물로

위의 10행에 나오는 “짜파누 신전에서! 우가릿의 바알루여!”라는 표현 가운데에서 “짜파누 신전”(d spn)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바알루 짜파누(b'l spn)로 고쳐 읽기를 제안하는 부분이다. 이유는 이러한 표현이 우가릿 문헌 어디에도 여지껏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바알루 짜파누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텔 올모 레떼와 KTU의 수정제안 참조). 하지만 우가릿어 달렛(d)과 라메드(l)는 확연히 구분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고쳐서 읽을 수는 없다. 로레츠(Loretz)-산마르틴(Sanmartin) 처럼 “보좌 방”(the throne room)이나 위의 번역처럼 “신전”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아비슈르(Y. Avishur)는 성서 히브리어 전치사구 베아드(“...를 위하여”, 겔 22:3, 삼하 10:12, 슥 12:8 등)의 뜻과

and Ugaritic Psalms. Jerusalem: The Magnes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4, 315 그리고 니콜라스 위얏, 앞의 책 364쪽 주 7 참조.

연결시켜 “짜파누를 위하여, 우가릿을 위하여”라고 읽는다. 사실 이 견해도 근거가 없는 해석은 아니다.

3. 몇 성서 구절의 예

다후드는 앞서 말한 그의 글에서 본문에 대한 논의는 없이 성서 히브리어 아드가 “의자, 왕좌”(seat, chair)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로 시편 60:11; 89:30, 38; 93:5; 94:14; 110:1과 이사야 47:5; 57:15, 예레미야 22:30 그리고 스바냐 3:8를 예로 들었다. 성서구절만 제시하였다. 우선 시편 89편을 『표준새번역』으로 인용해 보자(한글성서 36-37절).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과 같을 것이니
저 달처럼, 하늘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וְעַד בְּשֹׁחַק נֶאֱמָן),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셋째 행의 “하늘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에서 “증인”으로 읽은 에드(עַד)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아드(עַד)와 자음이 같기 때문에 “왕좌”나 “보좌”로 읽을 수 있다고 다후드는 제안한 듯하다. 곧 “하늘에 있는 보좌는 든든하리라”고 제안한 듯하다. 시편 89편이 다윗 가문의 영속성을 “왕위”라는 표현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인용한 우가릿의 키르타 전설의 문맥과 비슷하기는 하다. 그러나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K)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튜트가르텐시아(BHS)의 비평장치가 이 부분을 “하늘이 있는 한”(בְּעַד הַשָּׁמַיִם) 또는 “하늘처럼 영원히”(לְעַד כְּשֹׁחַק)로 읽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후드의 제안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편 93:5(한글성서 4절)은 명사 에드의 변형인 에도트에 관한 것으로 문맥은 하느님의 왕권에 관한 찬양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편 89:38(한글성서 37절)과 마찬가지로 “증언” 또는 “법령”(표준새번역, NJPS)으로 읽어 아무런 무리가 없다.

스바냐 3:8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לְיוֹם קוֹמִי לְעַד) 기다려라”(표준새번역). 위의 시 89편과 마찬가지로 마소라 본문이 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일어서는 날”이라고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고 어

색하다. 그래서 한글 『표준새번역』 성서도 칠십인역과 페쉬타를 따라 아드를 에드(“증인”)로 고쳐 읽었다.⁷⁾ 다후드는 모음부호를 고치지 않고 아드를 공간 개념으로 읽어 “내가 왕위에서 일어서는 날”로 옮길 것을 제안한 듯하다. 그러나 성서에서 전치사 라메드와 함께 등장하는 아드는 모두 시간 개념을 나타내므로 다후드의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삼하 7:16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나단 신탁에 들어 있는 구절로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말하고 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עַד-עוֹלָם)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עַד-עוֹלָם)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표준새번역). 다후드는 이 표현을 “영원한 왕위”라고 읽었다. 물론 문맥은 키르타 전설처럼 왕좌에 관한 것이지만 성서 히브리어 **올람(עוֹלָם)**의 경우 전치사 아드와 함께 쓰일 때 “영원히”라는 뜻으로 시간 개념으로 쓰이며 부정사 로(לֹא)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22:30을 보자.

너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생토록 자식도 없이 좋은 풀 하나 못 볼 사람’이라고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나지 않을 것이리니.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יֵשֵׁב עַל-כִּסֵּא דָוִד)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וְמוֹשֵׁל עוֹד בְּיְהוּדָה).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내리는 심판 신탁이다. 다후드는 마지막 행인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는”(오드)을 아드로 고쳐 읽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윗의 왕위”와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면 문맥이 왕위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오드를 아드로 고쳐 읽었다고 해서 뜻이 더 잘 통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수정을 하지 않아도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부분이다.

시편 60:11은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עַד אֲדוֹם) 인도합니까?”(표준새번역)에서 “에돔까지”(아드 에돔)를 아마도 “에돔의 왕권”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하지만 “에돔까지 인도한다”는 말이나 “에돔의 왕권”으로 읽으나 본문의 문맥에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7) 『표준새번역』 스마나 3:8의 주 7 을 참조.

다음으로 시편 94:14(“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아드 께데크 야슈브 미슈파트])와 110:1(“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아드],” 표준새번역)는 모두 접속사로 읽어진 것을 “의자”나 “보좌” 등의 명사로 읽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경우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해석에 아무런 무리가 없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아드는 구문형 구조에 등장하여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경우이다. 다후드가 제안한 이사야 57:15과 47:7를 먼저 살펴보고, 전통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영원”(eternity)으로 읽을 것을 그가 주장한⁸⁾ 이사야 9:6을 차례로 살펴보자.

3.1. 이사야 57:15의 “쇼켄 아드”

우선 성서 속에서 하느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구절 가운데 “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쇠칸(שָׁכַן)이 쓰인 예를 보자. 대부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이 동사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시온 신학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시온 산에 거하시는 분(הַשָּׁכֵן בְּהַר צִיּוֹן), 만군의 야훼님(사 8:18)
 나 야훼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이(שָׁכֵן בְּצִיּוֹן הַר־קֹדֶשׁ)(을 4:17, 21)
 시온에 계시는 야훼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הַשָּׁכֵן יְרוּשָׁלַיִם)(시 135:21)
 주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 산(הַר־צִיּוֹן זֶה שְׁכֵנָה בּוֹ)(시 74:2)

신 현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구름 속에 거하겠다고(שָׁכֵן בְּעַרְפָּל)(왕상 8:12 = 대하 6:1)
 가시덤불에 거하시는 분(שָׁכְנֵי סִנְהָ)(신 33:16)

열왕기상 8:12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드린 기도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신명기 33:16은 열두 지파에게 내리는 모세의 축복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출애굽기 3장의 가시덤불 신현현을 언급하고 있다. 사제문서(P)에서는 하느님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전치사구 “브토크”(בְּתוֹךְ)와 함께 많이 등장한다(출 25:8, 29:45-46, 민 5:3 등). 신학적으로 사제문서와 가까운 에스겔서의 43:9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특별히 이 구절은 하

8) 미첼 다후드, 앞의 글 346쪽.

느님의 보좌와 함께 이 표현이 언급된다.

사람아,
 내 보좌가 있는 성전(מקום כסאי)
 내 발자국이 찍혀있는 성전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다
 (אשר אשכון-שם בחוך בני-ישראל לעולם).

이렇게 동사 쇠칸이 하느님을 주어로 하여 등장할 때 주로 장소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사야 57:15에서는 이 동사가 두 번씩이나 사용되면서 하느님의 신탁을 바벨론 포로공동체(또는 귀환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에 등장한다. 우선 하느님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는 15절 상반절을 살펴보자.

높으신 분, 높이 기림 받으시는 분(רם ונש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שכן עד)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קדוש שמו)

형용사 카도쉬가 성전과 관련하여 “거룩한 분”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사야 6:3에 나오는 천사들의 세 번 교송(“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호 11:9, 합 3:3 참조).⁹⁾ 특별히 이사야 40:25에 나오는 “거룩하신 분(카도쉬)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위의 인용구와도 비슷하다. 상반절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하반절 앞 부분은 일반적으로 “나는 높이 거룩하게 거하고 있다”(במרום וקדוש אשכון)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 마가 수도원 이사야 두루마리(1QIs^a)가 이 하반절에서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높이 거룩하게”라는 부분을 전치사 베티와 함께 장소로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높은 곳에(במרום)

9) Baruch A. Levine, “The Language of Holiness: Perceptions of the the Sacred in the Hebrew Bible,” in Backgrounds for the Bible. Eds. M. P. O’Connor and D. N. Freedm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7, 253.

10) Miller Burrows, John C. Trever and William H. Brownlee (eds.), The Dead Sea Scrolls of St. Mark’s Monastery. Vol. I: The Isaiah Manuscript and the Habakkuk Commentary. New Haven: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50, plate XLII line 15.

성전에(שבקודש)¹¹⁾

나는 거한다(אשכח)

또한 하느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이사야 6:1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표준새번역).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את־ארני ישב על־כסא רם ונשא)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 표현에 의하면 하느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인용한 우가릿 키르타 전설의 인용구(KTU 1.16 vi 22-23)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뿐만 아니라 야쇄브(שב)와 쇠칸(שכח)이 “앉다, 거하다”는 뜻의 동의어로 사용된 예는 성서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사 13:20, 18:3 등).

또한 쇠칸과 같은 어근을 지니고 있으면서 장소를 뜻하는 형태소 멤(מ)이 붙어 있는 미쉬칸(משכן)은 시 26:8과 46:5 그리고 74:7에서 야훼께서 계시는 성전이나 성소를 가리킨다. 특별히 사제문서에서는 정관사가 이 낱말에 붙어 야훼가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미론 상 동사 쇠칸을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드는 시간 개념이 아닌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쇼켄 아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또는 “성전에 계시는 이”라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다. 『공동번역』은 이 점을 잘 반영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이,
거룩하신 분이라 불리는 이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언어맛아 용기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잃은 용기를 되살려 주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 주리라.

11) 시편 29:5, 96:9, 143:2를 보라. 바룩 레빈, 앞의 글 250-251쪽.

3.2. 이사야 47:7의 “그베렛 아드”

이사야 47장은 바벨론 심판 신탁 부분이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벨론을 여왕으로 표현한 점이다. 성서 속에서 오직 이곳 5절과 7절에서만 그베렛이 “여왕”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구절이다. 다른 북서방 셈어에서도 이러한 뜻을 찾아볼 수 없다. 모압어 메사 새김글(KAI 181:16)에 이와 같은 낱말이 등장하지만 “남자”(게베르)에 대칭하는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영원한 여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 마가 수도원 이사야 두루마리(1QIs^a)에는 마소라 본문처럼 그베렛 아드(גְּבֵרֶת אֲדָם)를 구문형 구조로 간주하지 않고 따로 떼어 읽었다. 곧 그베렛은 바벨론의 독백에 해당하는 앞 문장에 그리고 아드는 뒷 문장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칼형 완료태 이인칭 여성형의 철자가 아랍어의 영향으로 고어형(古語型) 어미인 요드가 붙어 있는 점이 또한 다르다.¹²⁾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뜻의 레바브에도 에크(ק)가 아닌 에키(כּי)가 어미가 붙어 있다.

영원히 나는 여왕이 되리라(לעולם אהיה גבורת).

다시는 너는 이런 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리라(עוד לא שמתי אלה על לבכי).

이 두루마리(1QIs^a)의 독법(讀法)은 마소라 본문과 다르기는 하나 나름대로 앞뒤가 잘 맞는 독법이라 할 수 있다. 성 마가 수도원 이사야 두루마리의 이 독법은 이 구절의 전승과정에서 본문이해에 문제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점을 인식한 지난 세기의 학자들은 위의 이사야 두루마리와 비슷하게 두 단어를 떼어서 읽었다.¹³⁾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현대 번역본들은 아드를 번역하지 않았다(CEV, NRSV, TOB, REB 등 참조).¹⁴⁾

하지만 “여왕”(그베렛)이라고 별명이 붙은 바벨론에게 내린 신탁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47장 1절에 유의할 경우 그베렛 아드의 아드는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1절은 고대중동의 애곡 풍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12) 에드워드 쿠셔, 사해 두루마리들 가운데 완전한 이사야 두루마리의 언어와 언어적 배경.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마그네스 출판사, 1959년. 19-22쪽. (히브리어)

13) BDB 723b와 Solomon Mandelkern,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Tel Aviv: Schocken, 1986, 823쪽 참조.

14) Zürcher Bibel(1982년 18판)은 “Ewig werde ich bleiben, Herrin für immer!”라고 아드를 시간 개념으로 옮겼다.

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우가릿 바알루 신화에서 일루 신이 바알루의 죽음을 애도하여 애곡하는 장면과 흡사하다는 점이다(KTU 1.5 vi 11-14).

그러자 대자대비하신 이, 공홀하신 신이
보좌에서 내려와(yrd lksi) 발판 위에 앉았다.
그리고 발판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이어서 일루 신은 머리 위에 재를, 왕관 위에는 먼지를 뿌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살갓을 돌로 문지르고 부싯돌 칼로 수염을 자르고 가슴과 허리를 부벼댄다(14-22행). 고대 중동의 전통적인 장례예식 장면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일루 신이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점이다. 이런 애곡 장면이 우가릿의 정경 예전문(canonical liturgy¹⁵)이라고 불리는 KTU 1.161에도 등장한다(19-22행).

높은 곳에서 사과쉬가 소리지른다.
보좌에서 내려와 네 주를 뒤따라(atr [b]lk l ksh),
네 주를 뒤따라 지하세계로 내려가라(ars rd).
지하 세계로 내려가라(ars rd).
먼지 속으로 내려가거라(w spl 'pr)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 47:1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애곡 장면이 나온다. 『표준새번역』으로 읽어본다.

처녀 딸 바빌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רדִי ושבִי עַל־עֹפָר).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שבִי־לָאָרֶץ אֵינ־כִּסֵּא).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모두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표현과 함께 지하세계와 관련된 용어(지하세계, 먼지, 내려가다)가 반복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성서에서 “의자”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환유(換喻, metonymy)로 등장한다. 특별히 죽음과 지하 세계를 묘사하는 상황에 자주 등장한다. 스올 신탁으로 유명한 이사야 14장을 보면 망령(르파임)이 된 제국의 왕들이 스올에서 바벨

15) Baruch A. Levine and Jean-Michel de Tarragon, “Dead Kings and Rephaim: The Patrons of the Ugaritic Dynasty,” JAOS 104 (1984), 649-659.

론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이 망령들이 의자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이 나온다(9절).

스올이 아래에서 요동치는구나, 너를 맞이하려고.
망령들이 너 때문에 꿈틀거리는구나.
염소떼가 의자에서 일어서는구나(מַסְאֹתָיִם מִכְסֵּי הַכִּסֵּי), 만방의 왕들이.

두로 심판 신탁인 에스겔 26장에도 왕권을 상징하는 의자와 관련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등장한다(16절).

해변가 통치자들이 왕좌에서 내려 서리라(וַיִּרְדּוּ מֵעַל כִּסְאוֹתָם).
옷을 벗으리라. 화려한 옷들도 벗어버리리라.
두려움을 옷 입으리라.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이 점을 고려할 때 문맥상 그베렛 아드의 아드는 시간 개념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바벨론의 죽음, 곧 바벨론의 종말을 “보좌”라는 표현과 함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베렛 아드는 “왕위(에 앉아 있는) 여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개역한글판』처럼 “그 종말은 생각조차 않는구나”로 읽을 수 있는 57:7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이라고 옮긴 악하리트(אַחֲרִית)는 “후에 일어날 일” 이나 “죽음”(“내세”) 또는 “끝”이라는 뜻으로, 시편 37:37-38에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비교하는 장면에 등장한다.¹⁶⁾

흠 없는 이를 지켜보라.

16) 성서 히브리어 악하리트가 특별히 “내세” 또는 “내세의 삶”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우가랏 아크하투 전설(KTU 1.17-1.19)에 등장하는, 같은 어원을 지닌 악하리유투(uhryt)의 용법에서 유추해 낼 수 있다. KTU 1.17 vi 33-38에는 아크하투와 아나투 간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니 내가 영웅 아크하투에게 생명을 주마.”

그러나 영웅 아크하투는 대답했다.

“오, 성 처녀시여, 제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영웅에게 거짓말을 정말 역겹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저승에서 생명을(uhryt)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어찌 목숨을 늘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머리에 유약을 바르겠지요.

제 정수리에 금치장을 할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저도 죽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죽을 테지요.”

울퉁은 이를 바라보라.
 그런 이의 끝(אחרית)은 평화이리니.
 하나 흉칙한 자들은 다함께 망하리라.
 악한 자들의 끝(אחרית)은 끊겨 버리리라.

또한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신탁을 마무리한다(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먼지 구름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울퉁은 이가 죽듯(מות ישרים)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אחריתי)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 47:7의 문맥은 죽음과 관련된 왕좌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만방의 여왕”이라고 번역되는 5절의 그베렛 마들라코트(גברת ממלכות)도 재고해 봐야 한다. 이 표현은 그베렛 아드의 평행 표현으로, 1절에 나오는 베틀라(“처녀”)와 함께 바벨론의 또 다른 별명이다. 마들라코트는 “만방”이나 “왕국”이라는 뜻 외에도 “지배” 또는 “통치”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베렛 마들라코트는 “통치하는 여왕” 또는 “지배하는 여왕”이라고 읽을 수 있다. 학개 2:22에서는 “통치 권좌”(ממלכות כסא)라고 하여 마들라코트가 “왕위”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베렛 아드는 “영원한 여왕”이라는 시간 개념이 아닌 “권좌(위에 앉아 있는) 여왕” 또는 “보좌의 여왕”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너는 말하는구나.
 “나는 언제까지나 통치권을 쥔 여왕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네 맘 속에는 담지도 않는구나.
 그 끝은 생각조차 않는구나.

3.3. 이사야 9:6의 “아비 아드”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 구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표현이 문맥에 어색하다는 점이다. 하여 지난 세기 여러 학자들은 창세기 49:27에 아드가 “전리품”이란 뜻으로 쓰인 것에 착안하여 “전리품의 아버지,” 곧 “전리품 분배자”로 해석했다.¹⁷⁾ 문맥이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은 것 같다. 하지만 요셉에 관한 진술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은 아직껏 그 뜻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다.¹⁸⁾ 우선 바로 뒤이어 나오는 7절을 읽어 보자(표준새번역).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על־כסא דוד ועל־ממלכתו)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권좌에 관한 것이다. 다윗 왕조의 왕권 이데올로기를 권좌라는 환유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맥락이 같은 구절로는 이사야 11:1; 예레미야 23:5, 33:15; 스가랴 3:8, 6:12 등이 있다.¹⁹⁾

우선 우가릿 문헌에서 아브(ab)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키르타 전설에 나오는 아브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아내를 포함하여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키르타의 가족들이 모두 병으로 또 전쟁으로 죽음을 맞는다. 식구들이 이렇게 재난으로 죽는 것을 지켜본 키르타는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린다. 평평 눈물을 쏟으며 울다 지쳐 잠이 드는데 꿈 속에 일루

17) BDB 723b와 George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Vol. I: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I-XXVII.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12, 176 참조.

18) E. A. Speiser, Genesi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The Anchor Bible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64, 370.

19) 이와 비슷하게 KTU 7.63도 왕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니크마두의 아들 니크메파우에 대한 호칭들이 나열되는 본문이다(1-9행).

...니크메파우(n]qmp')
 니크마두의 아들([bn nq]md)
 우가릿의 왕([mlk]ugrt)
 정의의 옹호자(b'l sdq)
 왕실 지배자(skn bt mlk)
 왕실 문 수호자(tgr mlk)
 세우신 이(bny)...
 ...왕의 마음(lb mlk)
 ...어린 가지/자손(smh)

R. de Vaux, "Le Palais Royal d'Ugarit II, Textes en cunéiforme alphabétiques des archives est, ouest, et centrales," RB 65 (1958), 635와 John Gray, The Legacy of Canaan: The Ras Shamra Texts and Their Relevance to the Old Testament. Second, Revised Edition.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V. Leiden: E. J. Brill, 1965, 225-227 참조.

신이 나타난다(KTU 1.14 i 32-43).

그런데 꿈 속에 일루가 내려왔다. 환상 속에 인간의 아버지(ab adm)가 나타났다.
 가까이 오더니 키르타에게 물었다.
 “어찌된 일이나, 키르타야, 울고 있구나?
 사랑스러운 자야, 일루의 후계자가 눈물을 흘리다니?
 그의 아버지 황소의 왕권을(mlk[t]r abh) 갈망했더라 말이나?
 인간의 아버지(ab adm)처럼 통치권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아버지”(ab adm)로 옮겨 본 아부 아다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쉽지가 않다. 하지만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루 신을 가르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키르타 전설에 들어있는 KTU 1.14 iii 32과 vi 13에서도 우두무(udm)의 왕인 파빌루의 메시지 가운데 “우두무는 인간의 아버지의 선물”(udm usn ab adm)이라는 말이 “우두무는 일루의 선물”(udm ytna il)이라는 표현과 나란히 등장한다. 곧 “황소”(tr)와 함께 일루의 또 다른 명칭이 “인간의 아버지”(ab adm)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황소의 왕권”(mlk tr abh)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이사야 9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브(ab)라는 표현이 왕권과 결부되어 왕조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²⁰⁾ 곧, 인간의 “보호자, 수호자”²¹⁾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피조물을 지으신 이”란 뜻의 바니우 바니와티(bny bnwt)가 아크하투 전설(KTU 1.17 i)에 등장한다. 다넬루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레째 되는 날 바알루 신이 이렇게 일루 신에게 탄원한다(20-26행).

형제들처럼 아들(bn)이 없어서, 친척들처럼 자식(šrš)이 없어서
 옷을 차려 입고 그가 신들께 공양하는군요.
 옷을 차려 입고 그가 거룩한 분들께 공수하는군요.
 그에게 꼭 복을 내리셔야 하겠습니까, 황소이신 나의 아버지 일루시여(tr il aby)!
 그에게 정말 복을 내려 주세요, 피조물을 지으신 이여(bny bnwt)!

20) N. Wyatt, *Religious Texts from Ugarit*, 183, n. 30과 Jean-Michel de Tarragon, *Le Culte à Ugarit: D’après les Textes de la Pratique en Cunéiformes Alphabétiques*.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19. Paris: J. Bagalda, 1980, 160-162 그리고 Del Olmo Lete, *Canaanite Religion according to the Liturgical Texts of Ugarit*. Trans. Wilfred Watson. Bethesda, Maryland: CDL Press, 1999, 345 참조.

21) André Cqauot, Maurice Sznycer et Andréé Herdner, *Textes Ougaritiques*. Tome I: Mythes et Légendes. Introduction, Traduction, Commentair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74, 57.

그리하여 그가 집안(bt)에서 아들(bnh)을 보게 하소서.
 그의 왕실(hkth)에서 자식((šrš)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자식은 신전에 조상신들(ilibh)의 비석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 23-24행에서도 일루 신은 “피조물을 지으신 이”와 평형구로 “황소이신 나의 아버지 일루”가 나란히 나온다. “나의 아버지”(아비)라는 표현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왕실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들”이나 “자식” 그리고 “집안”과 “왕실” 또 “조상신들”이란 표현이 이를 말해 준다.

이번에는 서신에 등장하는 아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KTU 2.16의 11행에 이 용어가 등장한다(1-20행 전문).

탈미야누가 나의 어머니(umy) 쇠렐리에게 드리는 서신.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우가랏의 신께서 나의 어머니(umy)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쇠프슈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시지요?
 쇠프슈께서 그 얼굴을 제게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하여 어머니(um)께서 아버지 때문에(mab)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군대 관리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머니(umy)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답장을 보내주시지요.

일반적으로 이 편지의 아버지는 헷족의 왕을 가리키고 어머니는 쇠렐리를 가리킨다. 특별히 쿤치요스(J.-L. Cunchillos)에 의하면 11행의 뜻은 헷족 왕이 후르 사람 탈미야누에게 호의를 베푼 것(“얼굴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에 대해 우가랏 아무라피 왕의 아내 쇠렐리가 기뻐할 것이라는 뜻이다.²²⁾ 곧 아부는 열왕기하 16:7에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גַּבְרָךְ וּבֶן־אִנִּי)라고 말하면서 사신들을 보내어 청원군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등의 용어가 당시 국제 정치질서 속에서 조약 용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앞서도 언급한 삼알어 진절리 새김글(KAI 24)에

22) André Caquot, Jean-Michel de Tarragon et Jesus-Luis Cunchillos, *Textes Ougaritiques. Tome II: Textes Religieux, Rituel, Correspondanc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89, 299-300, n. 18; J.-L. Cunchillos, “Que Mere se Rejouis de Perre: Traduction et Commentaire de KTU 2.16,” in *Ascribe to the Lord: Biblical & Other Studies in memory of Peter C. Craigie*. Eds. Lyle Eslinger & Glen Taylor. JSOT 6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8, 7-8.

서도 찾아 볼 수 있다(10-12행).

히야의 아들 나 킬라무와는 내 아버지의 왕좌 위에 앉았다.
 선대 임금들 앞에서 무슈칼림은 개처럼 으르렁거렸다.
 하나 나는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אב), 어떤 이에게는 어머니(אם), 어떤 이에게는
 형제(אח)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가축 때도 못 본 자들에게 나는 가축 때를 소유하게 했다.

11-12행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라는 용어는 마찬가지로 주변 나
 라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약 전문용어이다.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부
 성”(אבת)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페니키아어 카라테페 새김글(KAI 26A i)이
 다(11-13행).

나는 내 아버지의 왕좌 위에 앉았다. 그리고 여러 왕들과 평화(조약)를 맺었다.
 나의 정의로움과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선한 마음을 보고
 모든 왕들은 나를 아버지로 뽑았다(ואף באבת פעלם כל מלך).

11행에 나오는 “부성, 아버지성, 아버지로서의 위치 또는 지위”이란 뜻의
 아부트는 아브에서 온 추상명사이지만 우리말로 옮길 때 자연스럽게 읽히
 는 위치를 옮겼다. 아카드어 아부투(abbutu)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다.²³⁾
 역사적으로도 아스타와다는 기원전 8세기에 많은 왕들과 평등조약을 맺었으
 나 아버지처럼 존중받았다.²⁴⁾ 분명히 여기서도 아부트는 왕권과 관련하여 등
 장하는 일종의 왕조 이데올로기 용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성서에서는 “아버지”란 뜻으로 해석한 아브가 어떻게 쓰일까? 우
 선 사무엘하 7:14은 나단 예언에 들어 있는 부분이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
 라는 왕조 이데올로기가 표현되어 있다(표준새번역 13-14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את־כסא ממלכתו)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אני אהיה לו לאב)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위의 이사야 9:6과 내용이 비슷하고 사용한 용어도 같은 것을

23) Ignace Gelb et al. (eds.),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A. Part I.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1964, 50.

24) KAI 제2권 40쪽.

확인할 수 있다. 지배를 상징하는 키썰가 “보좌” 또는 “왕위” 그리고 마블라 코트는 “왕국” 또는 “나라”로 번역되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시편 89편을 보자. 27절에 아브라는 표현이 다윗 왕조의 영속성과 함께 등장한다(26-28절).

나는 바다 위에 내 손을 뻗치리라.
 강 위에 오른손을 펴리라.
 그는 나에게 이렇게 소리지를 것이다.
 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אבִּי אֲתָהּ).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 승리를 안기시는 바위이십니다.

이 부분 역시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사무엘하 7장의 나단 예언과는 달리 전사이신 하느님이 강조되었다. 26절에 나오는 “바다”(암)이나 “강”(나하로트)은 『표준새번역』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지리적인 용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신화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가릿 바알루 신화에서 야무 신과 나하루 신은 무투 신과 함께 바알루 신의 대적으로 등장한다. 바알루 신화 가운데에서 보통 “바알루와 야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KTU 1.2를 읽어보자(iv 23-27).²⁵⁾

그러자 갈고리 철퇴가 바알루의 손에서 독수리처럼 튀쳐 나갔다.
 그 철퇴는 군주 야무의 머리통을, 지배자 나하루의 미간을 가격하였다.
 야무가 쓰러져 땅바닥에 뒹그렀다.
 그의 무릎이 부르르 떨렸다. 그의 몸뚱이가 쭈그러졌다.
 바알루는 야무를 끌어내어 모조리 마셔버렸다. 나하루를 끝장내버렸다.

이렇게 시편 89:26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바알루의 모습을 야훼에게 대비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서에는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77편과 하박국 3장 등에 이러한 야훼의 모습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26절은 용사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사야 9:6의 배경은 전쟁과 얽힌 권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창세기 45:8을 보자.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말을 한다(표준새번역).

25) 이와 비슷하게 아나투 신이 죽음의 세력인 무투 신과 싸워 제압하는 이야기가 KTU 1.6 ii 30-37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고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וישימני לאב לפרעה)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לארון לכל-ביתו)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משל בכל-ארץ).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다. 여기서 아브는 “자문관, 고문관”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용어이다. NEB는 이 부분을 “바로의 최고 자문관”(Pharaoh’s chief counsellor)이라고 읽었다.²⁶⁾ 역시 이사야 9:6과 마찬가지로 권좌와 관련이 있는 문맥에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왕가의 최고 어른이나 이집트 통치자라는 표현과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야 22장에는 예루살렘 왕궁의 책임자인 셉나에 대한 신탁이 나온다. 이 신탁에는 그가 관직에서 쫓겨나는 날 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표준새번역 21절).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ממשלתך)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והיה לאב ליושב ירושלים ולבית יהודה).

이 부분 역시 이사야 9장과 마찬가지로 아브가 권좌와 관련이 있는 문맥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아브의 쓰임을 고려할 때 문자적인 “아버지”라는 번역보다는 “우두머리,” “자문관,” “고문”²⁷⁾ 또는 “보호자”나 “수호자”²⁸⁾ 등의 말로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야 9:5에 나오는 아드는 시간 개념이 아닌 공간 개념으로, 곧 “권좌,” “왕위,” “보좌” 등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26) 에스터 추가 부분 3:13, 9:12에도 하만을 아닥사스다의 δευτερος πατηρ라고 부른다.

27) Frants Buhl,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17. Auf. Berlin: Springer-Verlag, 1962, 1.

28) 위의 KTU 1.14 i 37에 나오는 “인간 수호자”란 뜻의 아브 아다무(ab adm)에서 그 뜻을 유추한 것이다. A. Caquot, M. Sznycer et A. Herdner, Textes Ougaritiques. Tome I, 57 참조.

러므로 아비 아드는 “왕권 수호자, 보호자”라고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자문관
위대한 전사
왕권 수호자
평화의 임금

* 보론: 이사야 9:5와 KTU 1.123

우가릿 만신전 목록으로 아브라는 표현과 함께 아드 그리고 쇠르가 함께 신명이나 호칭으로 등장하는 송덕문(頌德文, eulogy)²⁹으로 KTU 1.123가 있다(1-16행).

아버지(ab) 그리고 신들이여, 만세([slm])!
일루 만세, 만세(slm slm)!
일루 임금(sr) 만세([s]lm)!
다가누와 바알루여,
tt와 kmt여,
야르후와 케싸여,
카스족의 두 야르후여,
타가무나와 슈나무여,
코타루와 하시쓰여,
아트타루-아트파루여,
쇠힌루와 살리무여,
ngh와 srr여,
아두 그리고 쇠루여(d w sr)
찌드쿠-미쇠힌루여(sdq msr),
.....하신 신이여, 은총을!
영광과 존귀를!

델 올모 레페(del Olmo Lete)에 의하면 이 송덕문은 다른 만신전 본문들(KTU 1.65, 1.100, 1.107)과 함께 이중 신명이 나란히 등장하는, 전형적인 기도 주술형(prayer-magic) 본문이다. 첫째 행이 등장하는 “아버지 그리고 신들이여”에서 “아버지”(ab)는 일루 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여기

29) Gregorio del Olmo Lete, Canaanite Religion According to the Liturgical Texts of Ugarit. Trans. Wilfred G. E. Watson. Bethesda, CDL Press, 1999, 345.

서 13행의 “아두 그리고 쇠루”(d w sr)는 이중 신명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신명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송덕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신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사야 9장 5절과 비교해 보면 위의 송덕문과 같은 순서로 이 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엘 기보르(אל גבור)

아비 아드(אבי ער)

쇠르 샬롬(שר שלום)

두 본문(이사야 9:5과 KTU 1.123)에서 엘과 아비와 아드와 쇠르와 샬롬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³⁰⁾ 그러나 문제는 위 KTU1.123의 13행의 “아드와 쇠루”(d w sr)가 어떤 신인지 분명치 않은 점이다. 쇠루(sr)가 “군주”(prince)란 뜻으로 제의 신화인 “새벽과 해거름”(KTU 1.23:8)에 등장한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호칭으로 아두(d)를 생각한다면 “권좌에 앉으신 이”라는 뜻으로 “권세자”나 “권력자”라고 옮길 수는 없을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신명인 짜두쿠-미쇠루도 비슷한 왕조 이데올로기 용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다른 우가릿 본문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사실 이 본문의 뒷 부분(16-33행)에는 지하세계와 관련된 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가는 말

우가릿어 아드의 공간 개념은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다. 특별히 아드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성서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까운 북서방 셈어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가릿 문헌은 분명히 히브리성서의 모호한 낱말이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에서 제안한 대로 우가릿어에서 유추한 성서 히브리어 아드의 공간 개념(“의자, 보좌, 왕좌, 권좌, 왕위”)은 가설이다. 이 가설을 통하여 위에서 생각해 본 세 본문(이사야 57:15, 47:7, 9:5)을 더욱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30) 델 올모 레페, 앞의 책 343쪽 주 33.